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시편 130:1-8)

When I cry out to You from the depths (Psalm 130:1-8)

본시는 매우 심오한 시입니다. 죄와 고통과 참회와 사유에 대한 확신
의 소망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바울의 신학사상이 압축된 신약적인 시라는
감탄의 소리까지 있습니다.

본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한 은혜 구원에 대해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 130 is a very profound Psalm. This Psalm, which hopes
for the conviction of sin, suffering, repentance, and forgiveness
represents an admiration for what a New Testament Psalm would
have looked like had it been pressed upon by the Apostle Paul's
thinking. It is also one of the very best explanations in the Old
Testament of the gracious salvation that we have in Christ,
grounded upon his work of redemption.

1. 깊은 곳에서의 절규

1절의 깊은 곳은 심각한 위협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본시에서 시인을
괴롭힌 고통은 죄입니다. 3절에서 죄를 말한 시인은 4절에서 용서를 말하
고, 7-8절에서 속량을 선언합니다. 죄의 무게 아래서 울부짖으며 깊은 수
렁에서 구원해 달라고 애소하는 시인은 자비와 사하심이 전적으로 하나
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1. Screaming out from the depths

The "depths" in v. 1 refers to the grave danger of suffering. The
suffering that bothered the psalmist of this Psalm was a particular
sin. The Psalmist who refers to sin in v. 3, refers to forgiveness in v.
4, and declares redemption in vv. 7-8. The psalmist, who cries out
from under the heavy burden of sin and begs to be saved from the deep mire,
confesses that mercy and forgiveness are completely dependent on God.

2.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

하나님 안에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의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①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포괄적이다
- ②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현재 있다
- ③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있다
- ④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경건한 삶으로 인도 한다

2. There is forgiveness with God

The fact that forgiveness is found in God means the Gospel. We can consider
the following four points of forgiveness:
(1) God's forgiveness is inductive.
(2) God's forgiveness is for now.
(3) God's forgiveness is for those who want it
(4) God's forgiveness leads to pious living

3.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기다린 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자신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공격 받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
복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죄를 사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
까운 교제를 위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3. My soul waits for the Lord

The psalmist says that he believes in God's word, and waits for the Lord.
What he waits for is not forgiveness. Since he knew that there was already
forgiveness with God, he was now waiting for God. Since it was his sin which
assaulted God in the first place, he looked to God and waited for Him to restore
the broken relationship. Because God had already forgiven his sin, he wante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and he waited for it with faith.

4. 하나님을 신뢰하라

진리는 한 사람에게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구원의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
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널리 공개하고 크게 선포합니
다. 지금까지 시인은 죄에 대한 슬픔, 회개, 기도,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
신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 와서는 그것들은 이스라엘어로 돌이키
며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4. Trust in God

The truth must not be monopolized by any one person. Moreover, the gospel
of salvation must not remain in one place. Thus, we see the psalmist throw open
his own faith to the public and proclaim it with fervor. Up until this point, the
psalmist has concentrated on his own sorrow, repentance, prayer, and faith
regarding sin and hope in God. But now, these final verses focus on Israel and
encourage the people to put their hope in God who gives them unending love
and complete salva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진리를 혼자만 알고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죄로부
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열방에 선포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A person who knows these great truths and falls silent commits a sin. By
proclaiming to the world that God is the One who can forgive us and save us
from our sins,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절망의 섬에 희망의 빛을!

『아이티 지진 난민』 돕기, 구제헌금 드리기로

1월31일(주) - 주일예배 시간에

2010년 1월 12일 21시 53분 천지를 뒤흔든 지진으로 기아와 공포, 사망,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티를 돕는 데 우리교회도 앞장선다. 우리교회는 아이티 지진난민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1월 31일(주) 주일예배 시간에 드리기로 하였다. 교회 계획표 상에는 선교헌금을 드리는 달이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외부

의 도움만을 절실히 기다리는 아이티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이번 달에 구제헌금을 드리기로 한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이티를 돕기위한 구제헌금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2010년 1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24일(주) / 수여식: 2월7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회(부장 박두호 장로)는 다음과 같이 2010년도 1학기 장학규정을 발표하였다. 우리교회 장학생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음 규정을 참고하여 장학금 신청을 하기 바란다. (교회학교에서 작성하는 장학금 추천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I. 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 대상

서울교회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 장학금으로 분류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신대원생

- i) 장신대 신대원 재학 중인 자로 농어촌교회(면단위 이하) 교역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이상)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ii)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및 본 교회가 인정한 해외 신대원 재학 중인 자로 성적이 우수한 자(평균 B이상).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② 대학생

- i) 신앙이 돈독하고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이상) 장차 복음사역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③ 교역자, 직원, 선교사 자녀

- i) 교회생활에 모범을 보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이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④ 극빈자

- i)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이상) 신앙은 독실한데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중,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⑤ 장애인

- i) 본교회 사랑부, 에바다부, 호산나 학생 중,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평균 B이상).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⑥ 고등학생

- i) 본교회 고등부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인 자.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⑦ 특기자

- i) 본교회를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자로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를 통해 봉사를 하는 자로 신앙의 모범을 보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신청서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ii) 특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

II. 제출서류

- i) 소정의 신청서(본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seoulchurch.or.kr)
- ii) 교구 다락방장 추천서 1통
- iii) 자기소개서 1통
- iv) 신앙간증문 1통
- v) 성적증명서 및 필요시 학교장 추천서

III. 장학금 수여일정

- i) 신청마감: 1월24일(주)
- ii) 신청할 곳: 사무국
- iii)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2월6일(토)
- iv) 장학금 수여식: 2월7일(주) 찬양예배 시간

교회학교 겨울수련회 아가페타운에서

중등부: 25일(월)-27일(수) / 고등부: 28일(목)-30일(토)
디아스포라부: 29일(금)-30일(토)

이번 주간에는 중등부(부장: 이동만 집사)가 25일(월)~ 27일(수)까지 고등부(최양진 집사)가 28일(목)~ 30일(토)까지, 디아스포라부(부장: 이동권 집사)가 29일(금)~30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각각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아가페타운에서 갖는 만큼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으로 건축한 모든 시설들을 아끼고 절약하여 뒤에 사용하는 이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사용 하기 바란다. 또한 겨울수련회 계획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여 은혜로운 겨울수련회 되도록 기도한다.

제2권사회 주관 아이티 지진 난민 돕기 자선바자

여성성장 루치아노 최와 공동
2월1일(월)-4일(목) 4일간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 행사장

제2권사회(회장 윤숙희 권사)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한 여성성장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아이티 지진난민·불우이웃 돕기(발달장애인) 자선 바자를 실시한다. 2월1일(월)부터 4일(목)까지 4일간 실시되며 기간 중 50%세일을 실시한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

유,초등부자치회 회장단 선출

우리교회 유년부·초등부 자치회는 유년부 회장에 박예진, 초등부 회장에 박민우, 부회장에 박주원 어린이를 각각 선출하였다.

비전2020후원자(추가)

김경희, 김양숙, 김영빈(배병애), 김영주, 김영준, 나미용, 나성민, 박경정(이인보), 방효철, 유근종, 윤찬오, 이부자, 이혜숙, 전수자, 전원순, 정희순, 조미환, 홍성주, 황병석 (다음주계속)

농어촌100교회 운동 후원

1-30다락방 가브리엘 강수남(송경옥) 강재훈 광속 광태수 교역자회 권혁달 권현택 김경태(김민태) 김경희 김광민(박민숙) 김관집(왕경애) 김동욱(이수경) 김만집(이영자) 김명옥 김복녀 김상인(조금실) 김상태 김성준 김세웅(김윤) 김용환 김원중(이갑연) 김인혜 김장섭(최준숙) 김재근(안분선) 김재중(김유경) 김정애 김경희10 김종자(박진희) 김준복 김지욱(김도형) 김철진(노의정) 김철호(안미경) 김춘옥 김형상(최금숙) 나미용 노문환(장정화) 노송성(이영옥) 노중환 도르가 무디가 류충기 리브가 마리아 모세 민혜정 비올 박경정(이인보) 박금희 박기남(강영순1) 박노철 박동희 박정선 박정수(김경옥) 박정자1 박종권(김희경) 박지윤 박진희4 박찬성(심명숙) 박찬희 박화실(이은지) 박희석 방계운 배옥선 백훈(김명심) 베드로 보비 빌립 사라 새기족부 살롬권 사회 송영재(함정희) 송인수 신용식 신호용(김설아) 아브라함 안드레 안홍희(전화진) 양지훈(최성희) 양춘경(이인숙) 예스터 엘리야 오유식 오정수(이영희) 오정숙 오종원(김연화) 오지열 오혜경 우승희 우종암 원용범 유경희 유윤상(윤숙희) 육순자 윤 윤 은기장(김경숙) 이호 이갑진(박우주) 이강진(이신영) 이관규(이순영) 이광배 이남성(최영란) 이동만 이명구(문옥희) 이삭 이상호2 이성우 이영기 이우리 이인숙4 (다음 주 계속)

금주의 성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nd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2 Timothy 2:15 [NIV])

만민에게 전도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아! 우리 가정도 보내는 선교사로

김희경 집사(교구)

2010년도 우리교회표어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시
게 해드리는 건 만민에게
전도와 빈약한자 구제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많은 것
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이었음
에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 사명자
대회를 통해 목사님께서 우리교회가 201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시며 이를 위
해 새해부터는 한가정이 한선교사 후원운동을 할 예
정이고 위해서 기도하시자 던 말씀에 아! 우리 가정
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명령에 후원



운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다니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
올랐습니다.

또한 작년 선교사 파송예
배를 드릴 때 많은 선교사님
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
린자녀들과 함께 오직 하나
님의 복음전파를 위하여 낯선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 기도로 후원하고 교회의 한
가정 한선교사 후원운동에도 참여하여 작은 정성으
로 시작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선교사님 한가정을
다 후원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겠
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에 유년부 어린이도

- 놀라운 은혜 벌써 체험했습니다 -

권소의 집사(3교구)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 역사 속
에 지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
긴 일본. 너무나 아팠기에 조상들의
상처가 지금도 가슴 깊이 아려옵니다.
그래서 일본어조차 배우기 싫어했는데 주
님은 하필 일본 선교사 기도팀장을 맡기셨습니다. 원
수도 사랑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지키지 못한 미숙한
저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강한 명령을 내리셨
습니다. 주신 직분 감당하기 버거워 마른 눈물의 기
도로 애태울 때마다 주님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 메마
른 저의 신앙심을 촉촉이 적셔주십니다.

만나 홀 앞에서 선교후원 모금운동을 하던 날 유
년부 남자 어린이 한 명이 후원을 하고 싶다며 씩씩
하게 다가왔습니다. 후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
고 한참동안 고개를 가웃거리며 해맑은 눈동자로 계
산을 하더니

"한 달 운동이 만 원인데.....한 구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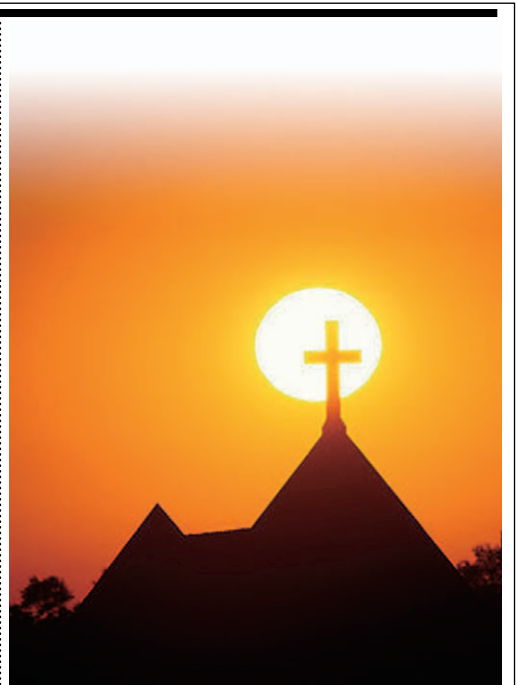
자신 있게 말하며 자신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부
모님 의견을 여쭙어보고 허락하시면 참가하겠다는

신중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고
사랑스럽던지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다는 것에 감사
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가족도 생활비를 절약하며 선교후
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
은 그 계획만 보셨는데도 벌써부터 몇 배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 감출 수 없어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드라마 한류열풍으로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매
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목사나 선교사는
칭빙하기 꺼려하는 일본교회의 변화를 비롯하여 세
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기를 소
망합니다. 넉넉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
랑하라고 하신 지상명령을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안내위원으로 주일 아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맞
이할 때마다 만남의 기쁨이 이토록 큰데 주님을 모르
는 불쌍한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
교 후원을 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주님
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행일치의 아
름다운 삶을 가꾸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러시아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창립예배 -2월14일 위임목사일행 참여-

러시아 김영호 선교사가 개척 설립한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창립 예배와 첫 번 세례식을 2월14일 주일
에 갖게 된다.

이종윤 목사와 12명의 선교위원들이 현지교회
창립을 감사하며 방문케 된다.

이종윤 목사는 창립예배 설교와 세례식을 집례하
는 것 외에 러시아 목회자들에게 특강, 상트 페테르
부르크 지역 선교사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장로교 신학교와 미르 신학교를
방문하고 러시아 선교 비전을 나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강수남 강재훈 강진환 고아라 곽숙 교역자실 권소
희 권애리 권오철 권혁달 권현택 김 휘 김경희 김광
민 김대호 김명식 김명옥 김문범 김복녀 김봉환 김
상임 김선영 김성주 김성준 김세웅 김수영 김수진
(5) 김숙영 김승환 김애순 김영빈 김영제 김영주 김
영준 김영희 김예원 김원중 김윤숙 김인혜 김장섭
김재근 김정곤 김중우 김중자 김중철 김준목 김지
영 김철호 김준욱 김필임 김현송 김형상 김희석 나
정선 노병호 노송성 도중섭 동아시아기도팀 루디
야회 류충기 류한민 마리아 여전도회 민혜정 박명
철 박경정 박명철 박동원 박민수 박선현 박용성 박
을진 박재숙 박정선 박정자1 박종권 박중환 박주원
박진희4 박찬성 박현미 박화실 배현승 백 훈 백정숙
변만종 손명근 송영재 송인권 송인수 송재현 송행
희 신도빈 신순자 신용식 신주현 신호용 안홍희 양
춘경 에스더 여전도회 오민세 오정수 오준서 오지
열 우승희 원용규 원용범 유기룡 유동규 유을상 유
환규 육순자 윤계진 윤석원 윤운 은기장 이갑진 이
강진 이관규 이광배 이명구 이미연 이민숙(4) 이민
화 이민희 이상호(2) 이세라 이신원 이영기 이영미
이영자 이완선 이우리 이종욱 이종일 이준우 이준
호3 이창수 이재경 이해나 이현수 이현주 이효민 임
광호 임미경 임상현 임충식 임태관 임홍수 장명순
장애순 장해라 (다음주 계속)



천국시민양성-대학부 수련회 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임형빈 성도 (대학부 회장)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청년의 시절에 온전히 2박 3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대학부'라는 주제로 교회와 세상에서의 역할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방법을 배워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독 청년이 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정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이며 이종운 목사님, 박노철 목사님, 유문건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대상은 91년생부터 86년생까지이며 대학생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아가페타운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였느니라(요 8:29) 라는 말씀을 받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기원하며 교회의 초석이 되길 원합니다.

서울교회는 청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대치동의 중심에 있습니다만 정작 대치동의 많은 청년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인도하는 그 선봉에 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 하는것' 과 하나님이 지으신대로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합니다. 새학년을 맞기 전, 불완전한 세상에서 나가 승리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 합시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성악가 장유상 교수의 찬양으로 드린다. 장유상 교수는 단국대 음대 졸업 후 이태리 케루비니 국립음악원 및 피에졸레 음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중앙음악콩쿨1위, 마리아 칼라스 국제 성악콩쿨 1위 등 수차례의 화려한 입상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KBS 열린 음악회에도 자주 출연하는 장교수는 현재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늘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이윤영곡)'의 2곡을 연주한다. 피아노는 백송희 집사가 수고한다.

도서실 신간기증 안내

이영자 집사(4교구)는 우리교회 도서실에 매월 신간을 기증하기로 하였다. 시작으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선교 운동사』(폴 피어슨 지음, 2009년 12월)를 기증해 주었다. 폴 피어슨 박사는 20세기 선교학이 공식적인 신학과정으로 공인되는 데 기여한 원로 선교학자 중 한 분이다. 또한 올해 서울교회 김치세미나는 에딘버러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로 예정하고 있다. 이 행사에 피어슨 박사님이 이종운 목사님과 함께 주제강연을 하신다. 성도들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린다.

비전2020 후원자 모임을 마치고

민족의 75%를 주님 품으로

최임수 집사 (비전2020운동 기획담당)

먼저 지난 1월 17일 찬양예배 시 거행된 비전2020 후원자 밤을 통하여 2009년도에 주신 군 선교의 풍성한 결실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비전2020운동 후원자 밤 행사가 찬양예배 시에 자매부대의 군종목사·서울교회 파송 선교사·육·해군 사관생도·부대 장병과 해병대 사령부 중앙교회성도 등, 80여명의 참석자들이 서울교회 성도들과 함께 비전2020운동의 실천을 결단하였고, 초청 장병들의 특송과 해병대 군악대 기악 9중주 특별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10년에도 간호사관학교, 3사관학교 졸업감사에 배와 자매부대 진중세례식 등 이 계획되어있으니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비전2020운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위한 운동입니다. 이중에서도 젊은 피가 넘쳐흐르는 사관학교 생도, 군부대 장병들이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전군에서 약 20만 명 가까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들은 여건상 가장 전도하기 좋고 미래 비전이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후원이 장병들의 세례식 지원과 온차 나누기 등으로 쓰이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1월 현재 후원 작성자가 300명 선만 후원한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에 참가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교회 비전2020운동본부와 군 선교팀에서는 군 입대자 및 군 파송 선교사를 위해 도교기도회를 통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복무중인 국군장병들을 위해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이루어 가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 선교의 한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8일(목) 기독교보사 직원 예배에서 설교한다. 29일(금) 한장총 신학교 설립인준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 1/25-2/5까지 캄보디아 이재출신교사와 함께 미안마, 캄보디아, 라오스 기독교인 및 경찰 제자훈련을 위해 출국한다.
- 이사: 김영준 장로(9교구) 광진구 능동 225-33
- 개원: 안성현집사 유숙인 집사 가정(14교구) '건우학원(맞춤식 수업)' 대치동 990-1 무진빌딩 011-243-8465
- 주간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1.24) 바울선교회(1.31)
- 금주의 식사: 호산나 학부모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3. 아이티지진 피해자 영적, 육신적 회복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